스위스 도시의 여름.

지속가능한 도시 체험

라인 강가에서의 여유로운 여름
물의 도시
청량한 취리히
현지인들이 자기 동네를 즐기는 방식 그대로

해가 길어지면 스위스에서는 경험할 것이 대단히 많아진다. 비교할 수 없는 하이킹 루트,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 수많은 공원 등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스위스의 도시는 한눈에 여행자를 사로잡는다. 관광 명소, 문화의 중심지, 창의적인 레스토랑, 트렌디한 명소가 서로서로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는 스위스 말고 없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젤, 루체른, 취리히의 고유한 매력을 두 발로 직접 경험해 보자. 스위스 도시의 여름은 지중해의 맛을 약속한다. 물 위에서의 재미, 훈훈한 밤들, 그리고 기분 좋은 술 한 잔. 좀 더 여유로운 휴식을 찾는 이들은 호숫가에서 요가를 하거나 강가를 거닐고, 물가를 따라 뛰어난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라면 스위스 도시들은 세계 최강이다. 우수한 공기질, 다양한 휴식 오락 공간, 잘 발달한 대중교통이 모두 그 증거다. 심지어 여행자들도 이런 노력을 바로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다. 여기 정리한 제안들이 더욱 의식적인 방법으로 스위스 도시를 발견해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바젤(Basel)

1) 라인 강가에서의 여유로운 여름

더운 여름날 바젤(Basel)에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인 강 수영이다. 날씨가 더운 계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을 참기란 불가능하다. 사실, 여름철에 강에서 바라보는 구시가지의 파노라마보다 더 좋은 뷰는 어디도 없다.

2) 위켈피슈(Wickelfisch) 드라이 백

수영을 하고, 물장난을 치고, 라인 강을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동안 옷가지와 귀중품을 젖지 않도록 보관하는데 바젤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용품이 있다. “위켈피슈”다. 소지품을 위켈피슈 안에 모두 집어넣으면 된다. 밝은 색채의 방수 백은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제작된다.

3) 바젤의 부베뜨(Buvette)

여름 동안엔 클라인바젤(Kleinbasel)의 라인(Rhine) 강가를 따라 늘어선 5 곳의 부베뜨에서 시원한 음료와 간단하지만 맛있는 특선요리를 즐길 수 있다.

4) 라인강 유람선

라인강 없는 바젤이란? 네 척의 여객용 페리가 한쪽 강둑에서 다른 편 강둑으로 이동하는데, 스틸 케이블 하나와 물결만으로 움직인다. 강을 건너며 말뚝을 박는 뱃사공의 전통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 도시의 분수대 물놀이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여름철이면 바젤의 분수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물놀이를 즐기게 한다. 현지인처럼 바젤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바젤의 유서 깊은 분수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분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6) 라인 강변의 수영장

강물로 바로 연결되는 라인 강변의 수영장 시설물이 있다. 아르 누보 양식의 수영장 시설이 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찾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강 상류를 향한다. 그다음 물결에 몸을 맡기고 강물을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출발한 지점에 도착해 있다. 라인바트 브라이테(Rheinbad Breite)와 바데하우스 생 요한(Badehaus St. Johann) 은 5 월부터 9 월까지 운영되는데 날씨에 따라 문을 닫을 수도 있다.

7) 플로스(Floss) 축제

여름에 열리는 무료 행사로, 지중해풍의 페스티벌 분위기가 바젤을 따라 흐른다. 뮤직 팬이라면 스위스 및 다른 나라 출신의 유명 밴드, 혹은 숨겨진 보석 같은 밴드가 라인 강 한복판에 떠 있는 돛을 단 수상 무대에서 연주하는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클라인바젤(Kleinbasel) 제방의 계단에 앉아 이 특별한 분위기에 푹 빠져볼 수 있다.

8) 홀츠파크 클리벡(Holzpark Klybeck) 간네트(Gannet)

바젤의 홀츠파크 클리벡은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신나는 재미와 엔터테인먼트를 라인 강변에서 선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 행사가 다채로운 공간에서 열리는데, 게임 나이트나 서커스도 열린다. 홀츠파크는 “문화의 유람선”인 간네트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뮤직, 씨어터,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위한 허브로, 레스토랑, 바, 선데크도 마련되어 있다.

9) 바젤 섬머 바

바젤은 여름날의 햇살이나 쾌적한 저녁 한때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선사해 준다. 라인 강가에는 마음껏 골라볼 섬머 바가 많은데, 스위스-독일-프랑스 국경이 만나는 항구 주변에도 다양한 바가 있다. 산드오아세(Sandoase), 데크 57(Deck57), 노드슈테른(Nordstern)이 대표적이다.

10) 라인 강 뷰가 있는 레스토랑

스위스 요리든 국제적 메뉴이든 상관없이, 배고픈 이들이 라인 강가의 다양한 레스토랑으로 몰려든다. 르 랭 블뢰(Le Rhin Bleu), 크라프트(Krafft), 우퍼 7(Ufer7), 리비에라(Riviera), 란데슈텔레(Landestelle), 루츠(Roots), 브라스리 레 트루아 루아(Brasserie Les Trois Rois), 가슈트호프 춤 골데넨 슈테르넨(Gasthof Zum Goldenen Sternen)이 대표적이다.

2. 루체른(Luzern)

1) 루체른 – 물의 도시

루체른(Luzern)은 물로 형성되어 온 도시다 – 한때는 어촌 마을로, 또 다른 한때는 무역 중심지로,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름났다. 루체른 호수와 로이스(Reuss) 강과 접한 특별한 위치 덕분에 물 위와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을 선사해 준다.

2) 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루체른의 분수대와 페이스북을 연결해 주는 것을 찾아보자. 맥주가 어디에서 양조되는지, 1910 년 대홍수 때 로이스 강은 그 수위기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2 시간짜리 가이드 투어에서 들어볼 수 있다. 물의 도시, 루체른에 빠져 보자!

3) 파노라마 요트

시크한 분위기, 아쿠아 테라스, 호수와 도시, 산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뷰, 이 모든 것이 여유롭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준다. 사피어(Saphir) 파노라마 요트는 로체른 호수 주변을 항해하며 모든 감각을 환히 깨워준다.

4) 루체른 수영장

우프쉐티(Ufschötti) 및 리도(lido)의 비치에 서면 발아래로 따뜻한 모래가 느껴진다. 구시가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역사적인 제바트(Seebad) 호수 수영장이 보이고, 로트제(Rotsee) 호수에서는 평화와 고요를 즐길 수 있다. 모든 취향을 만족시킬 만한 수영 시설이 다채로운 루체른이다.

5) 루체른 호수 페달로

슈바넨플라츠(Schwanenplatz) 광장에서 인기 있는 페달로(pedalos) 한 대를 빌려, 물 위에서 무념무상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호수 위에서 그림 같은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혼자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든, 잊지 못할 체험을 만들어 준다.

6) 분수대 가이드로 갈증 해소

루체른을 거닐다 200 여 개의 분수대에서 목을 축일 수 있다. 높은 수질을 자랑하는 식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분수대 가이드(Fountain Guide)는 가장 가까운 분수대를 찾아 주고, 루체른 물 공급에 관련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7) 잠수함 다이빙

서브스피릿(Subspirit)과 함께라면 연중 어느 때나 스위스 호수 아래로 다이빙할 수 있다. 무중력 기분을 체험하고, 난파된 물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혹적인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노련한 파일럿이 동행하기 때문에, 수심 100m 까지 내려갈 수 있다. 잊지 못할 모험이 기다린다.

8) SUP 위 밸런스

웅장한 알프스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스탠드 업 패들 보드에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루체른 리도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섭(SUP)이라 불리는 스탠드 업 패들 보드를 여기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혼자이거나 동행이 있거나, 그룹 단위이거나, 고요한 호수면 투어는 언제나 즐겁다.

9) 오아나 시티웨이브 서핑

비가 오거나 해가 나거나: 오아나 시티웨이브(OANA Citywave)는 스위스 유일의 실내 서프 웨이브로, 순수한 서핑의 즐거움을 위해 정밀한 컨디션을 구현한다. 개별적인 조율이 가능해, 모든 수준에 맞는 완벽한 세션을 선사한다.

10) 스위스 교통 박물관에서 선박 역사 체험

스위스 교통 박물관(Verkehrshaus)는 스위스에서도 제일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박물관으로, 모빌리티에 생명을 부여한다. 나우티라마(Nautirama)에서 스위스 항만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오리지널 선박을 감상하고, 인상적인 선박 엔진도 살펴볼 수 있다. 연중무휴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11) 빌헬름 텔 유람선상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빌헬름 텔(Wilhelm Tell) 선상 레스토랑만큼 물과 가깝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은 루체른에도 거의 없다. 데크 곳곳에 마련된 자리에서 도시와 호수, 알프스 산 최고의 뷰를 감상할 수 있다. 유서 깊은 선박으로 연중 도심에 정박되어 있어서, 도시를 여행하는 중에 잠시 쉬어가기 좋다.

3. 취리히(Zürich)

1) 청량한 취리히

취리히는 청량한 자연으로 매력을 발산한다. 1,200 개의 분수대, 두 개의 강, 하나의 호수가 도심 한복판에도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여름철 더위를 식혀갈 반가운 기회를 선사해 준다.

2)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스위스 어디에도 이보다 더 어반한 분위기를 주는 곳은 없다. 에셔-비스-플라츠(Escher-Wyss-Platz) 광장 근처에 있는 과거 산업 지대다. 취리히 서부(Zurich West)는 트렌드 실험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머뭇거리지 않으며, 강렬한 추진력을 장착했다.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은 그 진원지 중 하나다. 임시 공간처럼 창조되었는데, 도시 가든, 신선한 요리, 소규모 상점, 아트, 벼룩시장처럼 다채로운 이벤트를 조합하고 있다.

3) 제바트 엥에(Seebad Enge)

이것이 바로 100% 취리히다.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 수영을 하며 더위를 식히면서 햇살을 즐길 곳을 찾는 이들이 취리히 호수에 있는 제바트 엥에로 향한다. 호수와 알프스의 뷰가 수평선을 장식하고, 바비큐와 샐러드를 갖춘 야외 바가 있고, 전통 마사지 및 요가 클래스가 운영되고, 호숫가에 자리한 사우나에서 쉬어갈 수 있다.

4) 샨첸그라벤(Schanzengraben)

그림 같은 샨첸그라벤 산책로는 평화와 고요를 찾는 이들을 위한 인사이더 팁이다. 중앙역과 취리히 호수를 이어주기도 한다. 물가 산책로를 따라 보드워크와 사암 돌길이 이어지는데, 이국적인 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에서 쉬어가기도 좋다. 여기에서 남성 전용 수영장인 "플루스바트 암 샨첸가르벤(Flussbad am Schanzengraben)"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수영장이 바 리미니(Bar Rimini)로 변신해 여성도 입장할 수 있다. 샨첸그라벤은 스탠드 업 패들 보딩에도 완벽한 곳으로, 취리히 도심 풍경을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

5) 사파(Saffa) 섬

사파 섬은 취리히 호수에 있는 섬으로, 1958 년에 인공으로 조성되었는데, 제 2 회 스위스 여성 워크 전시(Swiss Exhibition of Women's Work: SAFFA)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다. 90m 길이의 섬은 너비가 50m 까지 확장되며, 다리로 연결된다. 취리히 시민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곳이다.

6) 플루스바트 운터러 레텐(Flussbad Unterer Letten) 강가 수영장

플루스바트 운터러 레텐은 취리히에서 제일 오래된 강가 수영장이다. 키오스크 가판대와 놀이터, 옷 보관소, 수영장이 있다. 야외 수영장은 1909 년에 지어진 것으로 건축가인 피슬러 및 프리드리히(Fissler and Friedrich)의 작품이며, 원형 상태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나중에 엘사 및 에른스트 부르크하르트(Elsa and Ernst Burkhardt)에 의해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풀장으로 확장되었고, 1986 년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중요 건물 목록에 등록되었다. 저녁이면 각종 문화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7)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위클리 마켓

뷔르클리플라츠 광장에서 열리는 장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애정을 듬뿍 담아 "뷔르클리매애르트(Bürklimäärt)"라 부른다. 취리히에서 제일 사랑받는 마켓 중 하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 끝자락에 있는 장에서는 풍성한 종류의 싱싱한 허브, 제철 및 근거리 재배 채소, 근교 농장에서 정성껏 만든 맛있는 특산품을 찾아볼 수 있다. 취리히 호숫가 옆에 있는 그림 같은 위치와 광장을 에워싼 웅장한 밤나무 덕분에 장터는 산책을 겸한 그림 같은 여행지로 전혀 손색이 없다.

8) 취리히의 리도(Lido) 라운지

"맨발 바"라는 뜻의 바르푸스바(Barfussbar)는 취리히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바디 바(Badi Bars)" 중의 하나다. 여기를 찾은 이들은 신발을 벗어 놓고, 구시가지의 웅장한 뷰를 벗 삼아 외딴 강가 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오리지널 아르누보 양식의 풀장에 자리한 바로, 낮 동안 개방하는 유일한 여성 전용 풀장이지만, 저녁에는 모두에게 개방된다. 일요일에는 바에서 맨발 댄싱 시간도 있다!

9) 스트리트 퍼레이드(Street Parade)

스트리트 퍼레이드는 세계 최대의 테크노 파티로, 보통 8 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테크노 외에도 트랜스, 하우스, 드럼 앤 베이스, 덥스텝도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호숫가로 일렉트로 및 테크노 팬 수 십만 명이 모여들어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행사 뒤에는 여러 애프터 파티가 열린다. 스트리트 퍼레이드는 취리히에서 열리는 최고의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90 년대에 언더그라운드 파티로 시작해, 취리히 여름을 대표하는 제일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0) 취리히 카드

취리히 카드는 24 시간 혹은 72 시간 동안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다. 취리히 시내와 주변 지역에서 트램, 버스, 기차, 유람선,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가격 할인 및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추가 옵션이 더해진 취리히 카드 바이크는 더욱 탄력적으로 취리히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취리히 카드의 모든 혜택에 더해 24 시간 혹은 72 시간 동안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ko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